

성대낭종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tracordal Cysts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홍기환 · 박병암* · 정우철

성대낭종은 후두미세수술의 발달로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써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성대 낭종은 낭종의 내용물 및 점막상태에 따라 저류성 낭종과 유표피성 낭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류성 낭종은 점액 분비선의 폐쇄로 점액이 저류되어 발생하며 유표피 낭종은 선천성으로 상피하층에 파묻힌 상피세포의 잔여물이거나 혹은 파묻힌 상피세포 위에 외상(음성남용)으로 손상된 점막이 재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설이 있다.

본 교실에서 시행했던 후두미세수술 1093례중 수술후 성대낭종으로 확진된 44례를 대상으로 성대 낭종에 대한 분류와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였던 바, 저류성 낭종이 유표피성 낭종보다 더 흔하였으며 이학적검사 소견상 유표피성 낭종의 진단이 저류성 낭종보다 용이하였고 저류성 낭종은 성대폴립 혹은 성대 부종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대 낭종의 발병 요인으로 성대과용, 상기도 감염 등이 의심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치료 및 경과를 분석한 결과 치료로는 후두미세수술에 의한 제거이지만 수술시 낭종벽의 파열 및 성대 고유관의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